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1일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새로운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변화 · 혁신 예고 출발점”

전개공, 비전선포식... 친환경 에너지 사업 · 안전경영 등 12개 과제 실행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지난 1일 임직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공사의 사업 추진방향과 중장기 경영 방침 등이 담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최정호 사장은 선포식에서 “전북개발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로드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을 설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소개한 새로운 경영전략은 ‘지역개발 선도로 도민행복 실현’이라는 미션과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라는 비전 아래, 전북발전을 위해 발걸음 12개의 추진 과제들을 2027년까지 실행한

다는 내용이며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주택공급, 안전경영 등이 주요 과제이다.

전북개발공사는 “공사가 도내 유일의 지방공기업인 만큼, ESG경영 뿐만 아니라 인권 · 청렴 · 윤리, 고객만족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지역 전 연령층 대상 ‘여성일자리 한마당’

7일 비전대 컨벤션홀서

취업을 희망하는 전주지역 청년과 경력다절여성, 중장년 등을 위한 일자리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전주비전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중장년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2023 여성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여성! 일자리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전주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주여성재도전사관학교, 전주YWCA 고령자인재은행 전라북도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행사는 크게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직업 도전관’ △이력서 컨설팅 등을 위한 ‘직업 코칭관’ △드론·

퍼스널컬러 진단 등 유망직종을 체험하는 ‘직업 체험관’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직업 도전관’에는 전북지역 20개 우수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1:1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또, 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및 코칭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업 코칭관’에서는 노무 상담과 직업 선호도 검사, 직장 내 의사소통 사회복지사 상담과의 만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직업 체험관’에서는 유망직종인 드론 체험과 퍼스널컬러 진단 천연다퓨저 만들기 공간·시간 관리 컨설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www.jjwman.or.kr)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 전북중기청, 도내 제조 소기업

22곳 선정... 총 3억7500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2023년 제2차 전북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전북 제조 소기업 22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총 3억7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업 내역을 살펴보면, ESG 경영혁신 바우처는 6개사(건설링 3개사, 기술지원 2개사, 마케팅 1개사),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는 5개사(건설링 2개사, 기술지원 2개사, 마케팅 1개사),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는 11개사(건설링 4개사, 기술지원 5개사, 마케팅 2개사)이다.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9월 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이 원하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 ‘한우 고급육 정책, 앞으로도 유효한가’

농진청, 올 농식품 소비 빅데이터 논문경진대회 김건아씨, 최우수 논문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8월 30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3 농식품 소비 빅데이터 논문경진대회(논문경진대회)에서 고려대학교 김건아 씨가 최우수상 논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문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패널의 2010년~2022년 가계부 자료(데이터) 1,600만 건을 활용해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자료(데이터) 분석 능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농식품 소비 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한우 고급육 정책, 앞으로도 유효한가?’는 한우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변화를 분석해 향후 한우 농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가격하락으로 위



지난달 30일 농촌진흥청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농식품 소비 빅데이터 논문경진대회’가 열렸다

기를 맞고 있는 한우 시장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고급육, 일반육)의 소고기 공급과 한우 농가의 생산 비용을 낮추기 수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논문경진대회에는 전국 대학에서 제출한 15팀의 논문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내용의 창의성, 논리성, 시기성 등을

서면 심사한 후 상위 5팀의 논문을 선정하고 최종 발표심사를 거쳤다. 발표심사에서는 5명의 심사위원이 답변의 논리성, 의사 전달성 등을 평가했으며, 서면 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수상자를 가렸다. 이날 논문경진대회와 함께 ‘소비자패널 우수 가계부 경진대회’도 개최된 바, 김선영 씨(경기도 과천시)가 최우수상을 안았다.

/김욱기 기자

## 농산물 물류비 절감 방안 마련

전북농협-농협물류, 현장 토론회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주)농협물류(대표이사 최선식)가 지난달 31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전북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통한 농업인 물류비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일 전북본부장, 최선식 농협물류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북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김승규 전북 산지유통관리지역협의회장과 회원, 주요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물류 대표의 산지농산물 공동물류에 대한 현안 설명과 타 지역의 산지농산물 공동물류 운영사례를 청취하고, 전북 농산물 물류 효율화 방안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은 선출하기 물류집중과 소량 농산물 증가에 따른 물류비 과다 발생 문제 개선방안, 전국적인 물류 구축망 확충에 따른 판매처 확보 어려움과 물류비용 증가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원 확대 문제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전북농협과 (주)농협물류가 지난달 31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전북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통한 농업인 물류비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원농협, 양파 공선출하회원 대상 재배 기술교육 실시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달 31일 양파 공선출하회 회원을 대상으로 기계화 확대를 위한 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파 재배시 기계화 도입, 전반적인 재배 기술과 재배 시기별 중점 관리사항, 병해충 예방 및 방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양파 공선출하회에서는 박기열 조합장에게 감사패를 남원농협 고충통합센터 산지유통관리 담당 왕성진 계장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취임 직후부터 양파 공선출하회를 조직, 양파 계약 재배, 파종 및 영농자재 지원, 공동수확 작업단 조직,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 등 농가 소득 향상 및 실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